



창원 의회 소식

제 7 호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

● ● ● ●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04 개 회 사

06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25회 임시회(2013. 1. 22. ~ 1. 24.)
- 제26회 임시회(2013. 2. 27. ~ 3. 6.)

14 5분 자유발언

- 제25회 임시회(정영주 의원 등 7명)
- 제26회 임시회(손태화 의원 등 10명)

18 건의안 및 결의안

-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1 위원회 활동

2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0 언론 보도자료

40 의원 칼럼



개 회 사



창원시의회 의장 배종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힘든
상황이지만 우수가 지나고 희망찬 새봄을
알리는 경칩을 앞두고 제26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께 감사를 드리며, ‘희망은 키우고 근심은
줄이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완수 시장

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
족시켜 주시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지역 언
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4일 우리 창원시의회는 강장순 의원
등 20명이 발의했던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
을 만들기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
9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
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데 더 한층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새롭게 출발한
박근혜 정부의 ‘희망의 새 시대’를 맞아 110만
창원시민 모두는 새 정부 탄생을 진심으로 축
하드리며 국운상승과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바
탕으로 ‘태평성대’가 지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민에게 최고의 희망은 일자리 일 것입니
다. 우리시에서는 올해를 일자리 창출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례지원과 신규고용 창출 창업기업 지원 못
지않게 ‘진실한 중견기업 육성’과 ‘기업인 아카
데미’를 상설화하여 기업인 인식제고로 실질
적인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제안
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3월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과 불의에 맞
서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
어난 3·15의거 53주년이 되는 국가 기념일입
니다.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통합창원
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3월 18일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
례’제정에 맞서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대
내외에 각인시키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지
8주년이 됩니다.

최근 일본은 영토문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다케시마의 날 지역 행사에 중앙정부 차관급
인사는 물론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하는 만행
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국과 분쟁중인 댜오
위다오는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영
토라고 우기면서,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그건 또 아니라는 이중성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믿지 못할 가깝고도
먼 나라임을 새삼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1750년에 제작된 해동지도에 “백두산은 머
리고, 대관령은 척추며, 영남은 대마, 호남
은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라고 기록하고 있
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의 영토인데 350년 전에 일본이
탈취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일본이 독일처럼
‘역사의식’이 있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바라며 지금과 같은 만행에 대해 엄중 경고 하
면서, 우리의회가 제정한 대마도의 날 조례 정
신을 계승 발전시켜 언젠가는 찾아와야 할 우
리의 영토임을 온 국민과 특히, 자라나는 세대
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의식 고취’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
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활기찬 새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크
게 기여하고 시민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를 안
겨주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
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 2. 27.

창원시의회 의장 **배종천**

제2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1. 22. ~ 1. 24.)
3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장애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용어 중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순화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시장과 도지사 간에 체결한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와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 등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원금이 미미하고,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하여 소득원 취약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6.25 및 월남 참전 중 가장의 사망으로 힘들게 살아온 전몰군 경유족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월 11,000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오던 저소득 주민이 매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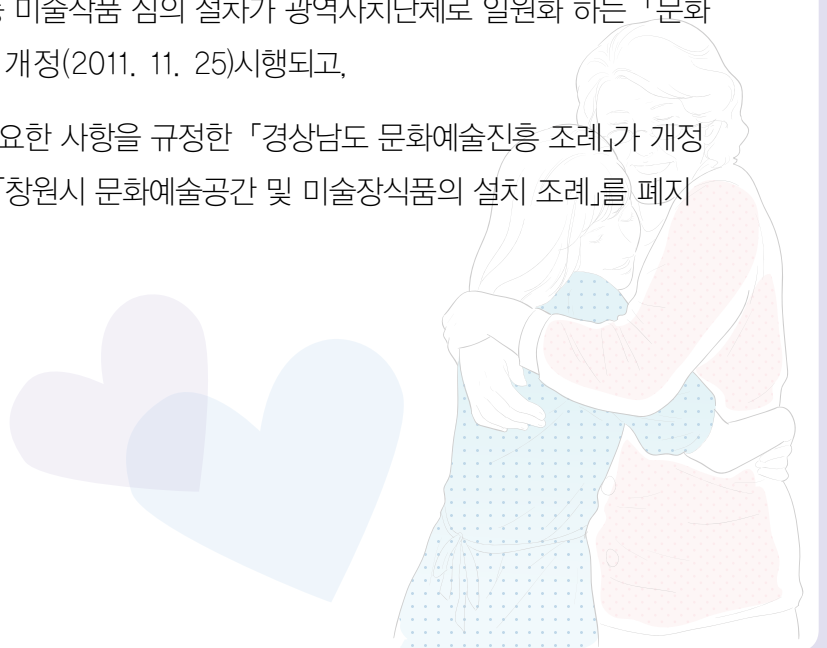
통합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직영·위탁 이원적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며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 영유아 보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미술작품 심의 절차가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가 개정(2011. 11. 25)시행되고,

나.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개정(2012. 6. 28)됨에 따라 기존 「창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2. 27. ~ 3. 6.)
8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제 의 자 : 의장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가.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현안으로 급부상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결정의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통합 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마산·진해지역 출신 의원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제7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통합준비위원회 의결사항(시명칭, 시청사 소재지, 임시청사, 인센티브)에 대해 전면 무효화를 결정하고, 다만, 무효화는 2항, 3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써 관련 법률과 조례의 개정 전까지는 유효하며(2013. 2. 26 제7차 협의회 의결)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민의 중지를 모아 새로운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나. 지난 2013년 2월 26일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 의결함.

- 1) 통준위 의결서 4가지 항목을 전면 무효화 한다.
단, 무효화는 2항, 3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써 아래 법률 및 조례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
 -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 －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 －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2)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을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 상정 부결한다.
- 3) 통합시 명칭, 통합시 임시청사, 통합시 청사소재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사항은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구성하여 결정한다.
- 4) 위 1, 2, 3번 항목을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건의한다.

다. 이로 인해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과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인 의회 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창원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 것임.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구청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창원시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일부 개정(시행2012. 4. 15)]에 따라,

나.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별첨 조서(생략)와 같이 해제권고하고자 함.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 발 의 자 : 정쌍학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므로 정부와 창원시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

- 발 의 자 : 차형보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22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하고 사상 처음 정부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케시마의 날(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島根)현이 주관했지만 일본중앙정부 차관급인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시마지리 아이코 정무관이 참석했다. 이는 더 이상 다케시마의 날이 지방 소도시 행사로 치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2. 27. ~ 3. 6.)
8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 발 의 자 : 최미니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일제 감정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시작한 정기 수요집회가 이제 그 횟수가 1,060여회를 기록하고 있음.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간사이네트워크]에 대한 극우세력들의 폭력적 행동과 함께 오사카부 경찰의 부당한 수색과 협박의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국수주 의자들로 구성된 밴드가 이번 3.1절 전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노래 CD를 제작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 보내왔고 노래가사에는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동해 표기를 없애라', '돈으로 산 한류' 등의 내용과 함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망언이 담겨져 있었음.

제94주년 3.1절을 보내면서 독립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과 함께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새겨봐야 함.

이에 창원시의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110만 창원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문(p20)을 제안함.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의 구청장 보좌 4·5급 담당관 설치근거 마련에 따라 구청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도모 하려는 것임.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의 구청장 보좌 4·5급 담당관 설치근거 마련에 따라 구청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한 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의 구청장 보좌 4·5급 담당관 설치근거 마련에 따라 구청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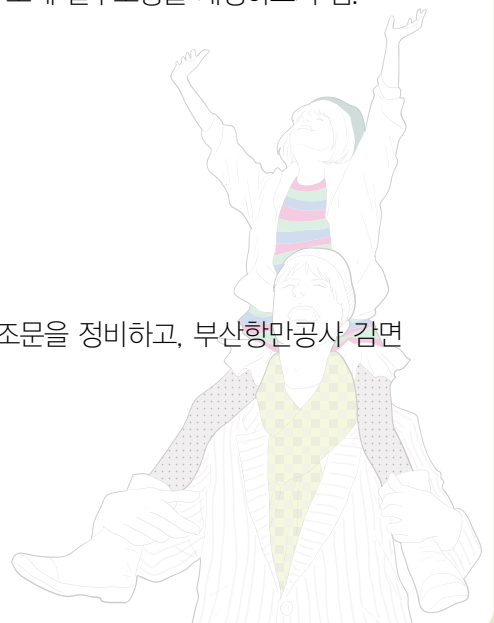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13. 1. 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창원시세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3. 1. 1)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부산항만공사 감면 일몰기한 도래로 인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2. 27. ~ 3. 6.)
8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수산업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업의 종류, 어장의 규모 등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규모와 척수 등에 대한 근거기준을 마련코자 함.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소득기준을 통일하여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자 함.

창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기존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새로 건립중인 복면 감계 시영임대주택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과방법과 임대기간을 조정하고, 임대료 연체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1안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부결
- 제안이유

가. 통합 이후 청사소재지 선정을 통준위 의결사항에 의거 시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유치 기대로 인한 갈등 장기화

나. 통준위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후보지 3개 지역을 각각 청사 소재지로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청사 소재지 결정 논의 정상화와 조속 결정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2안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부결
- 제안이유

가. 통합 이후 청사소재지 선정을 통준위 의결사항에 의거 시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유치 기대로 인한 갈등 장기화

나. 통준위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후보지 3개 지역을 각각 청사 소재지로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청사 소재지 결정 논의 정상화와 조속 결정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순위 :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부결
- 제안이유

가. 통합 이후 청사소재지 선정을 통준위 의결사항에 의거 시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유치 기대로 인한 갈등 장기화

나. 통준위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후보지 3개 지역을 각각 청사 소재지로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청사 소재지 결정 논의 정상화와 조속 결정



5분 자유발언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5 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정영주 의원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으로 「함께하는 창원, 노동자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2013. 1. 22.)

기업사랑 도시이면서 노동자 도시인
우리시는 재정규모 2조 3천억 원으

로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임. 창원시도 울산 북구, 광주 광
산구처럼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



여월태 의원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2013. 1. 2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보육
교사 사용자와 종사자의 명확한 고용
관계, 근로계약서 체결, 노동법령, 고

용불안 요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나쁜 조례개정
으로 보육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거
를 바람.



손태화 의원

시 청사와 관련하여

(2013. 1. 22.)

통합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통
합정신에 입각한 청사소재지를 결정
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우리시의 현실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옥선 의원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에
대하여(2013. 1. 22.)

창원시에는 6개의 농촌체
험마을이 있음. 농촌체험
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 도입된 사무장 제도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
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차형보 의원

농업·농촌을 살리는
창원시 행정구현
(2013. 1. 24.)

귀농·귀촌정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현실적인 유치
활동과 영농정착 지원정

책 조례 제정을 마련해야 함. 국토의 균형적·생산
적 활용과 농민인구 확충, 재정 뒷받침 등의 정책대
안 마련을 요구함.



김동수 의원

통합시 문제점 진단과
해법(2013. 1. 22.)

최근 우리시 여론조사 결
과 새 청사 건립에 반대하
는 여론이 53.8%, 기존청
사 활용이 67.3%, 구)창원

시청사 활용이 67.1%로 나왔음. 통합시 명칭도 임시
청사 소재지도 여론조사 결과대로 결정했음.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함.

제 26 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손태화 의원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
(안)의 계획인구와 관련
하여(2013. 2. 27.)

2025 창원시도시기본계획
(안)의 계획인구 또한 막
연히 1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상적인 계획인구를 갖고 도시기본계획
(안)을 확정지을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계획안으
로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막는 명품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림.



정쌍학 의원

창원시의회 균형발전
위원회 공무국외 여행
실시 후의 정책 제안
(2013. 1. 22.)

벤치마킹한 선진 시책과
제도는 공무국외여행 귀

국 보고서에 종합 정리하여 제안하겠음. 선진국의
선진 제도와 시책은 보고 배워서 시정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이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며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우리시가 살
아남을 수 있는 길임.



강기일 의원

구암 119안전센터의
조속한 신축을 촉구하며
(2013. 2. 27.)

창원소방본부가 시민의
생활안전과 소방행정에
관한 정상적인 기능과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암 119안전센터의 조속한
신축 추진과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정비, 노후장비 교
체 등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 해줄 것을
제안드림.

5분 자유발언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6 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김헌일 의원

진해야구장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촉구
(2013. 2. 27.)

구)육대부지 야구장 유치 건립 확정 발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장으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다해 명품도시 창원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을 하고자 함.



노창섭 의원

경남도는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선임 개입을 중단하고 도세 징수액의 50%를 창원시에 지원하라!
(2013. 2. 27.)

경상남도과 창원시가 협의가 되지 않아 5개월이 넘도록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남도의 이사장 선임 개입 중단 요구와 도세 징수액의 50%를 창원시에 지원할 것을 촉구함.



조갑련 의원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2013. 2. 27.)

어떠한 이유로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로 막는 의회운영을 삼가 해 주시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

회운영위원회의 본질을 되찾아 주시길 간절히 촉구함.



여월태 의원

통합창원시 청사 결정에 대하여 (2013. 2. 27.)

창원, 마산, 진해 지역 주민들이 통합 창원시의 한 시민이라는 정서 통합이 될 때까지 청사 소재지 결

정은 중단, 보류 되어야 하고 시민 중심의 구청 행정기능 강화, 광역시 추진 등 창원시 미래 발전 전략과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함.



박철하 의원

지금은 창원시 신규야구장 성공적 건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다.(2013. 3. 5.)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야구장 건설에 있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시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신규야구장 부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2013. 2. 27.)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지표와 각계각층의 시민, KBO 및 엔씨구단, 시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3단계의 정밀타당성 용역의 결과물이 제출되고 시청사 문제에 혼란을 조성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후 신규야구장 부지를 최종 선정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방종근 의원

두대파출소 조속히 부활되어야(2013. 3. 5.)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조차 마음이 놓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로부터 예방은 물론 신속한 치안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원동민들이 범죄의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두대파출소를 부활시켜야 함.



차형보 의원

생산비는 오르고 값은 추락 ... 창원시, 농축산분야 소득 증대대책 마련 시급 (2013. 3. 5.)

1970년대 산업화 시대 이후 상대적으로 타 산업의 희

생양이 되어왔던 농업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 직시하여 농축산 분야 소득증대 정책수립을 제언함.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북한은 결국 국제사회의 약속을 파기하고 2013년 2월 12일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그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류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 도발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너뜨린 북한 당국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국제사회의 체제 등 응분의 책임을 저야 하고, 핵 개발이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로 한민족의 공멸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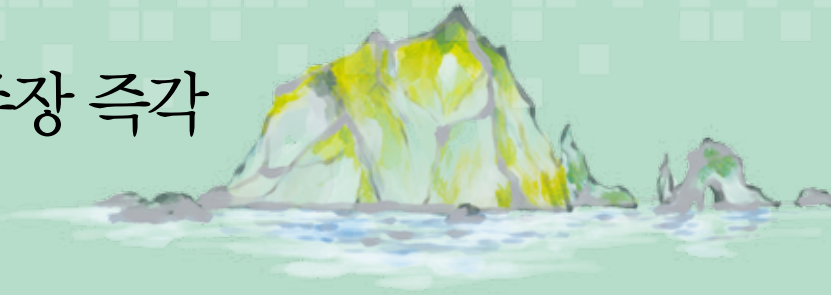
이에 창원시의의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나라와 관련 당사국 및 국제사회가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이번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창원시의의회는 금번 북한의 핵실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1992년에 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약속이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와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북한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 핵 실험 등 군사적인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에 즉각 나아와 핵문제에 대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협상의 룰에 따라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의 주도적 해결과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태세와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4. 창원시장은 북한 핵실험으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5. 창원시의의회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110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앞장서서 수행할 것임을 역사와 시민 앞에서 엄숙히 다짐한다.

2013. 2. 27.

창원시의의회 의원 일동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



창원시의회는 일본정부가 지난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 (島根)현이 주관한 “다케시마의 날 (竹島 · 독도의 일본식 명칭)” 기념행사에 일본중앙정부 차관급인 해양정책 · 영토문제담당 시마지리 아이코 정무관이 참석한데 대하여 이는 더 이상 다케시마의 날이 지방 소도시 행사로 치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침탈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일본정부에 110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깊은 유감을 전하는 바이다.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의 영토에 편입된 이래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일본정부는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지지층을 의식해 교과서 검증 등 왜곡된 독도과거사 도발을 반복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행위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및 동북아시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창원시의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영토문제는 역사문제 차원에서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라.
2.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왜곡된 역사교육과 영토 주권침해와 관련한 일체의 주장과 조치들을 즉각 철회 · 중단하라.
3. 정부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고 여 · 야 정당은 합심하여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책동에 맞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도 영유권 수호에 강력히 대응하고 전 세계인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5.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 역사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 2. 27.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창원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강점당한 후 야만적인 폭력과 핍박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고 있다. 동시에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일본군위안부’와 공부시켜 주겠다는 감언에 속아 군수공장에 동원되어 밤낮 기계처럼 일하며 노동을 착취당했던 ‘조선여자근로 정신대’ 소녀들을 기억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대부분은 고향에 돌아와 위로와 보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왜곡된 시각과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으며, 심지어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독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50년의 기나긴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서 1992년 1월 8일부터 20여 년간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정기 수요집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제 집회횟수는 1,060회를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80~90세의 고령이어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60여명 만이 생존해 있다.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써 ILO 29호의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 받은 배상금을 이유로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일본 주요 정치가와 사회지도층은 공식사과는커녕 강제동원피해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해 매춘을 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닌 해방전쟁이었다’는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110만 창원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외교협상에 나서라.
2.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와 보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강제동원의 역사적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 교육하도록 요구하라.
3. 대한민국 국회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고통의 여생을 보내고 있는 현실의 절박함을 인식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한·일의회 간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3. 3. 5.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우서)는 지난 1월 14일 제2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를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 ◎ 2월 19일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를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 ◎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 ◎ 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안동·포항·울산시의 의회운영 관련 자료수집과 지역 특성 및 전통자원 활용에 대한 현장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동화)는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창원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 ◎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고,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했다.



균형발전위원회



- ◎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장병운)는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는데 주요현안인 진해 해상음악분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이었다.
- ◎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누비자 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는데 주요 현안사업인 해양공원 정비사업, 두동지구 개발사업,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 ◎ 2월 28일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현장과 마산만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청취와 주요 사업 현장을 시찰했다.



경제복지위원회



- ◎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주)는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했다.
- ◎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환경문화위원회



- ◎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조준택)는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 ◎ 1월 23일에는 당면 현안업무 협의를 위해, 2월 15일에는 행정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주요 행정기구 개편 현황보고 청취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



-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황일두)는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 2월 19일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수정가결 했다.
- ◎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 ◎ 2월 28일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회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신속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주민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 / 별 / 위 / 원 / 회



◎ 구성목적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민의 중지를 모아 새로운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구성·운영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제출한 건의에 따라 통합시 명칭, 통합시 임시청사, 통합시 청사소재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결정을 도출하여 창원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구성근거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 구성의결

2013. 3. 5.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수는 지역별 대표의원 3명씩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50일간으로 함.

◎ 구성현황

9명(위원장 김태웅 의원, 부위원장 이성섭 의원)

- 창원지역 : 김동수·노창섭·차형보 의원
- 마산지역 : 김성준·송순호·황일두 의원
- 진해지역 :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의원

◎ 활동기간

2013. 3. 5. ~ 4. 11.(38일간)

◎ 활동내용

- 현안문제 세부 결정을 위한 지역별 의견 제시와 구체적 방안 논의, 통합준비위원회 위원 출석 진술, 통합 당시 회의록 및 통합 관련 자료검토 등 7차에 걸친 마라톤 회의와 통합추진 과정과 이행 전제조건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우리시 보다 앞서 통합한 여수시 의회를 방문하는 등 통합 창원시 명칭과 임시청사 및 청사소재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 도출과 세부결정을 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계속된 지역별 입장 고수와 의견 차이로 해법 찾기에 상당한 애로와 타결의 한계로 새로운 대안 마련과 합의사항을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 제7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합 의 서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통합 창원시에서 (구)마산시를 분리하는 것을 건의한다.
2. 창원시청 청사소재지는 '임시청사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번지'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

단, ① 당일 본회의에서 1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여 가결되면

마산지역 의원들은 통합 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당일 본회의에서 1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여 부결되면

2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한다.

③ 당일 본회의에서 2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여 부결되면

창원지역 의원들은 통합 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3. 4. 11.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12 제야의 종 타종행사 참석



배종천 의장은 2012년 12월 31일 밤 계사년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을 타종하면서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

충훈탑 신년참배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새해 첫날 충훈탑, 국립 3·15민주묘지를 차례로 찾아 헌화 및 분향 등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제9회 우수조례 선정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2월 14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제 8주년 기념식



3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의장단 기자회견



3월 2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 창원소재 공공기관 이전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의장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장단 간담회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의회와 집행부의 각종 협의사항 및 보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3년 도지사 초도순방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월 1일 '2013년 도지사 초도순방' 일정에 따라 우리시의회를 방문했다.

제161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배종천)는 1월 23일 밀양 시의회에서 제161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1월 29일 창원·마산·진해지역 대표의원 각3명으로 구성·발족하여 제7차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하고 2월 26일 폐회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3월 5일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지역별 대표의원 3명씩 9명으로 구성되어 4월 11일까지 활동했다.

입법·법률 고문 위촉장 전달



배종천 의장은 2월 1일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도춘석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설맞이 어려운 시설과 군부대 위문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올해도 설을 맞이하여 2월 6일 관내 어려운 시설과 군부대를 찾아 설날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문했다.

일본 나고야시 자민당 의원 방문



2월 22일 일본 나고야시 자민당 의원단이 우리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을 접견했다.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방문



전주시의회(3.7)와 완주군의회(3.15)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우리시의회를 방문하여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성화봉송 행사참석



1월 25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성화봉송주자팀이 창원시청에 들러 창원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관내 초등학생에게 모의의회 체험 기회 제공



3월 27일 창원시 관내 초등학생 110명과 학부모 및 인솔교사 50명, 새창원청년회의소 관계자 10여명이 견학·방문했다.

제94주년 3·1절 애국지사 추모제 참석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3·1절을 맞아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의 위업을 기리는 추모제에 참석했다.

창원솔라타워 개장 기념식 참석



4월 1일 시작하는 진해 군항제를 맞아 진해구 명동 음지도 해양공원 내 솔라타워 개장 기념식을 3월 25일 개최했다.



창원시의회 –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지난 1월 29일 창원·마산·진해지역 대표 의원 각3명을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명칭을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로 했다. 이것은 “창원시 시청사 입지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통합이후 지역 최대 현안인 시청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민의 뜻에 따른 것이다.

약칭 “청사 협의회”는 창원지역 대표의원으로는 김동수·노창섭·차형보 의원, 마산지역 대표의원으로는 황일두·송순호·김성준 의원, 진해지역 대표의원으로는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지역별 공동대표로는 창원지역은 김동수 의원, 마산지역은 황일두 의원, 진해지역은 김태웅 의원이 선임되었다.

“청사 협의회” 운영기간은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전까지인 2월 26일까지로 잠정 결정하고, 협의회 운영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했다.

회의개최는 주2회(화요일 10시, 목요일 14시)로 하고 공동대표 협의 시 추가 소집 가능하며, 협의회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회의록 작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동대표 합의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중점 토의사항은 통준위 결정사항 중 청사소재지함에 관한 효력 검토이며, 제2차 협의회는 1월 31일 오후 2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통준위 결정사항 중 청사소재지함에 관한 지역의원 의견수렴 후 2월 5일 제3차 회의에서 재논의 할 예정이다.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협의회 개최

지난 1월 29일 이후 두 번째로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1월 31일 오후 2시에 열렸다.

3개 지역별 대표의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창원지역 김동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지역별로 “대안제시와 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한차례 정회를 하고 오후 4시 1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청사 결정을 위한 대안 제시에 따른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및 절차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각 지역별 주장의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오늘의 주제인 대안에 대한 승복방안의 검토와 지난 1월 30일 야구장 입지 선정 발표 후 달라진 상황 아래 시민의 뜻을 지역별로 확인 후 차후 2월 5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별 대표성으로 인해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으므로 서로 양보와 이해로 9인 협의회를 다음 임시회 전까지 잘 이끌어 가기로 합의했다.

제3차 협의회는 내달 5일 오전 10시에 김태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검소하고 따뜻한 설맞이 어려운 시설 및 군부대 위문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해마다 추석과 설 명절이 되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5개 구별 노인·장애인 보호시설 등에 대해 위문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2월 6일 관내 어려운 시설과 군부대를 찾아 설날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문했다.

배종천 의장은 육군 제39사단을 방문하여 사과와 굴 등을 전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장병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며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김성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도(장동화 위원장, 정영주 위원장, 차형보·이찬호 의원) 관내 어려운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분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구 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성일 부의장은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모두가 훈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창원시의회 배종천 의장 환경미화원 일일 현장체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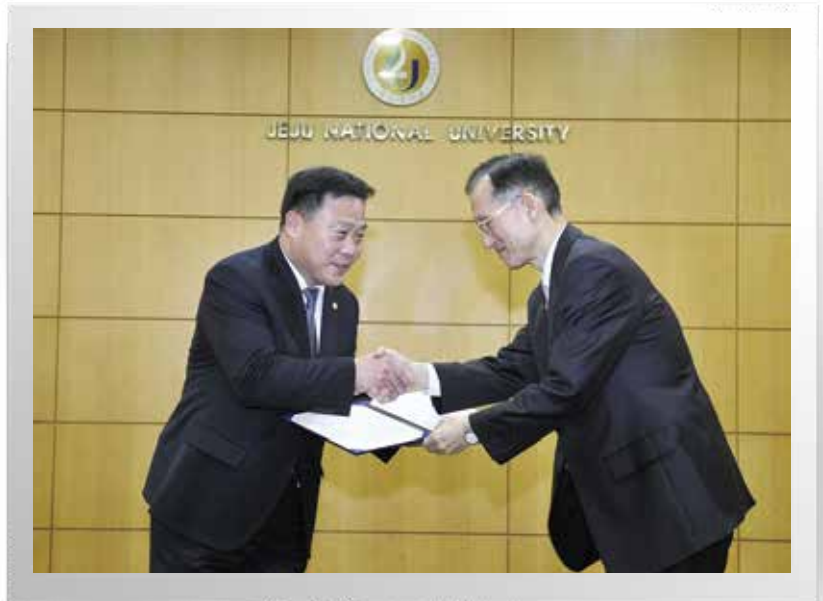
창원시의회 배종천 의장은 2월 7일 새벽시간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남상업지역의 민생현장 및 쓰레기 배출 현장실태를 파악하고자 환경미화원 3명과 함께 한조가 되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일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배종천 의장 외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등 8명은 상남상업 지역에 밤새 배출된 생활쓰레기와 각종 전단지 불법배포 실태 및 재활용품 수거와 동시에 잔재물 청소를 하는 현장을 직접 체험을 통해 파악하고 이후 환경미화원과 아침식사를 같이하며 현장종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격려했다.

배종천 의장은 “체험을 통한 문제점 중 청소차 노후화에 따른 수거 어려움 등 2건을 의정 활동속에서 적극 반영하여, 현장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 삶의 현장속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청 환경미화과에서는 종량제 봉투속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반 2개조 6명이 하루 20여건을 계도 실시하고, 상업지역 상가 관리인 간담회를 2월중 실시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하여 상인들의 적극 실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언론 보도자료



창원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선정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2월 14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9회 우수조례 선정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강장순(경제복지위원회) 의원 등 20명이 발의하여 제정한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가 제정 과정, 시행 성과 등을 높이 평가받아 제주도의의회와 함께 단체부문 공동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경기도의회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번 단체부문 대상 수상은 없었다.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마을단위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개선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마을단위 환경수도 만들기 실천운동 등이 주요 지원 사업내용이다.

배종천 의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은 창원이 환경수도의 메카로써 자리매김하고 2020년 세계의

환경수도 달성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하여 수상하게 되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 사이에 우수조례를 발의·제정한 전국 광역 및 기초 의원·의회, 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례의 창의성과 합법성, 제정과제 및 시행후 성과 등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우수조례를 발의 제정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언론 보도자료



청사문제 해결의 열쇠는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지난 1월 29일 창원·마산·진해지역 대표의원 각3명으로 구성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발족하여 제7차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하고 2월 26일 폐회했다.

중점 논의사항으로는 “통준위 결정사항 중 청사 소재지함에 관한 효력 검토”와 “청사 결정을 위한 대안제시와 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것이었다. 지역별 의견차이로 합의사항이 나오지 않아 재논의를 거듭하다가 2월 14일 제4차 협의회에서 “통준위 결정사항을 무효화 하는 것과 관련한 새로운 방안”을 지역별 의견 수렴후 논의하기로 하고, 2월 19일 제5차 협의회에서는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2월 21일 제6차 협의회에서는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세부 의결서” 초안을 작성하고, 2월 26일 제7차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수정 의결서”와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세부 의결서”를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의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준위 의결서 4가지 항목을 전면 무효화한다.
단, 무효화는 2항, 3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써 아래 법률 및 조례의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 상정 부결한다.
3. 통합시 명칭, 통합시 임시청사, 통합시 청사소재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결정은 의회내 특별위원회를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구성하여 논의한다.
4. 위 1, 2, 3항을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건의한다.

그리고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세부 의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2. 위 원 수 : 9명(지역별 3인, 2013. 3. 4.한 의장에게 제출)
3. 활동기간 : 50일 이내
4. 활동내용
- 통합시 명칭, 통합시 임시청사, 통합시 청사소재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결정.

언론 보도자료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현장 방문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은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은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28일 오후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현장과 마산만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청취와 주요 사업 현장을 시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장병은 위원장은 시공업체 관계자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회원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장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황일두) 소속 의원 11명은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8일 회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장을 현장 방문했다.

회원천은 마산회원구 회원2동에서 마산합포구 오동동 해안까지 총연장 3km로 구 마산지역을 종으로 횡단하는 하천으로써 하상바닥정비, 친수시설 조성, 수목식재 등의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281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방문단은 하천과 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신속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주민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시동

창원시의회는 지난 3월 5일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이날 특위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태웅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성섭 의원을 선임했다. 3월 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013년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50일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현안으로 급부상된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결정의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통합 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매듭을 짓지 못함에 따라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회 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창원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특위는 앞으로 통합시 명칭·임시청사·청사소재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결정을 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특위는 현재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회와 통합이 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방문해 관련 자료 수집과 상호 의견 교환을 하기로 했다. 청사 소재지 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다양한 사례의 면밀한 검토가 특별위원회 활동에 큰 참고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등 중앙 관련 부처와 기관을 잇따라 찾아가 통합 로드맵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인센티브 관련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를 토대로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한다는 목표를 잡아놓고 있다.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제8주년 기념식’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3월 18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제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창원교육지원청 박태수 교육장,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및 창원시의회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념사에서 배종천 의장은 올해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행사 수준으로 개최한 것은 역사날조와 영토침략의 야욕으로 못 박고 일본의 잔악한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영토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배우고 익혀 올바른 역사관을 뿌리 깊이 정립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정우서 위원장과 정쌍화 의원이 선창하여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행각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행사 참석자 전원과 함께 제창하여 대마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기념식 후에는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 김문길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대마도에 있는 한국문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해주는 증거 자료들을 비롯해 대마도에 있는 한국 문화들을 살펴보고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통해 창원시의회는 ‘대마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창원시 관내 초등학교 창원시의회 견학 방문

창원시 관내 초등학교 110명과 학부모 및 인솔교사 50명, 새창원청년회의소 관계자 10여명이 지난 3월 27일 창원시의회를 견학 방문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으로 새창원청년회의소(회장 이용기) 연차사업인 '제25회 어린이 회의진행교실'이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참석한 학생들은 관내 초등학교 회장단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배종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여 앞으로 이 나라의 초석이 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의회홍보 동영상을 통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배우고, 의회 회의진행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올바른 회의진행과 건전한 토의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초등학교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안”이라는 주제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의회에서의 입법과정을 이해하는 현장 교육의 귀중한 시간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끝으로 견학 일정을 모두 마쳤다.



강 장 순 의 원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2013. 1. 10. 창원시보 제61호 게재)

올 겨울한파가 유난히 매섭다. 추워야 겨울답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다들 힘들어 한다.

앞으로도 이 같은 한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파는 곧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우리 경제는 IMF체제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이 더욱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여기에도 올해 경기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가뜰이나 살기 힘든데 한파까지 찾아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주변 곳곳에는 단칸방에 살면서 한파에도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에만 의지하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다행히 이번 겨울에도 우리지역인 성산구 가음정·성주동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가음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성주동의 한 사회봉사단은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겨울용품을 기부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모두가 어렵고 춥지만 사회적 약자의 설움을 이해하는 보통 사람들이 너무도 고맙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남몰래 활동하고 있는 각 봉사단체 회원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설움을 이해하고 성금과 성품을 기부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더해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봉사단체 회원들이 자신의 일도 미룬 채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나선 모습이 보기 좋다. 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부터 따뜻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들의 선행은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나눔'이기에 두고두고 훈훈함이 더해진다.

새해를 맞이한 지 엿그제 같지만 벌써 열흘여가 지났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번 겨울이 더욱 길게 느껴지는 만큼 새해에도 우리의 이웃을 다시금 살펴보는 지혜가 절실하다.



이 해 련 의 원

새 희망과 꿈을 노래하자



(2013. 1. 25. 창원시보 제62호 게재)

창원시민의 꿈과 희망을 보듬은 태양이 떠오르고 우리네 가슴에 새로운 빛으로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임진년엔 유독 큰 기대를 품은 해이기도 했었고, 크고 작은 사건들로 국내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 했었던 해였습니다.

이제 임진년도 가는 세월에 떠나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 희망을 노래하렵니다. 늘 마지막이란 또 다른 새로움의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며 어떤 꿈을 가지고 실천 할 것인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해에는 내 마음에 겸손의 나무 한그루 키우겠다고 다짐 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겸손의 나무가 내 마음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새삼 자신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는 의미가 큰 한해였기에 많은 아쉬움 또한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제 아쉬움은 가는 세월에 묻어 보내고 희망 품은 새해에 또 하나의 다짐을 세워 볼까 합니다.

얼마 전 지나간 영화들을 감상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서 장면과 대사들을 놓쳐 버린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땐 어려서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감상을 했습니다. 장면 중에 대령에게 청혼을 받은 마리아의 노래속의 가사가 너무도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자신은 어려서 너무도 불행한 시절을 보냈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나봅니다. 그렇기에 대령님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세상엔 거저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남을 위해 베푼 사랑으로 행운을 갖게 되었다는 마리아의 노래 속에 사랑 나눔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랑 나눔을 실천 하시는 봉사자들을 떠올려 보며 그분들은 자신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기에 오히려 봉사를 통해 자신들이 보람 있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밝고 에너지 충만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활기찬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랑 나눔 실천으로 받은 대가가 삶의 활력과 행복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위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과 힘든 사람들을 위한 작은 소망을 세워 봅니다.

대망의 2013년엔 우리 모두가 꺼지지 않는 작은 촛불 하나 마음에 밝혀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의 우리가 있으리라 믿기에 우리의 희망 꿈을 다 같이 꽃피워서 내일의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손 태 화 의 원



추운 겨울나기

(2013. 2. 7. 창원시보 제63호 게재)

오늘은 여름 장마처럼 새벽녘부터 온종일 소낙비가 내린다. 인터넷으로 창원날씨를 검색해보니 2013년 2월1일 오후 3시 현재 기온 13℃, 보통비 계속, 강수량 44.5mm, 풍속 5.0%, 습도 90.0%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지역에는 큰 태풍 피해도 큰 추위도 없었다.

지난해 말 60년만의 폭설이 내리더니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도 간간이 그때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눈얼음이 보인다. 1월 한 달 동안 영하 1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 떨고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오늘은 도시가스 보조금 신청 접수를 위해 주민대표와 함께 소낙비를 맞으며 마산회원구청으로 향했다. 구도심 서민들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기름보일러조차 켜지 못하고 전기장판을 구들장 삼아 온기를 찾으려 애쓰시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관내 한 지역이라도 더 보조금 신청에 당첨되기를 기대하면서 로또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도시가스 공급을 기원하며 발길을 옮겼다.

이제 얼마 후면 까치까지 설날이다. 세밀은 더 추워진단다. 특히나 오늘 비는 봄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의 긴 터널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 같다. 세밀 노점상 생선가게 할머니께서 뽕뽕 언 손을 호호 불며 생선을 손질하고 계신다.

“할머니 요즘 장사는 좀 어떠세요?” “말 말어! 날씨는 춥고 손님은 통 안와. 그래도 어쩔 겨 한 톨이라도 벌어야지” “예 할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할머니께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따뜻한 아랫목이 있을까? 하루 온종일 추위와 씨름하시다 안식처에 가셨을 때를 상상해 본다. 발길을 돌리는데 마음이 아프다. 빨리 봄이 와야 할 텐데...

얼마 전 집 근처에 인력시장이 개업을 하였다. 새벽 6시 먼동이 트기 전 새벽 인력시장! 그곳에 하나, 둘, 삼삼오오 모여든다. 엄동설한 영하 10℃의 날씨에도 뽕뽕 언 발을 동동 굴리며 혹시나 오늘 내 일자리가 있을까 기다려 보지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담배 한 개비 꺼내 물고 쓸쓸히 발길을 돌린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일감을 찾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올해처럼 추운 겨울을 저분들은 어떻게 견뎌냈을까?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이라도 건네드릴걸... 엄동설한의 강추위에 떨고 있는 생선가게 할머니, 새벽 인력시장에서 쓸쓸히 발길을 돌리는 이웃집 아저씨! 그들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다.

따뜻한 이웃사랑으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꽃피우는 희망의 봄을 함께 맞이합시다.

환경을 살리는 EM, 생활속으로

(2013. 2. 25. 창원시보 제64호 게재)



홍 성 실 의 원

EM은(Effective+Microorganism)의 머리글자를 딴 유용한 미생물들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이다. 효모, 유산균 및 광합성 세균이 EM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균종이며 이들 균들 간의 복잡한 공존공영관계가 만들어내는 발효생성물의 향산화력이 EM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미생물 중에서 나쁜 미생물 수가 증가하면 나쁜 미생물의 성격을 띠어 부패와 오염이 되고 유익한 미생물 수가 많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우유나 콩을 방치해두면 부패하면서 악취를 풍기는데 이는 강력한 활성산소(Active oxygen : 산화력이 강한 유해산소)를 유발하는 산화현상 때문이며 같은 우유나 콩에 유산균이나 납두균이 작용을 하게 되면 우유는 요구르트, 콩은 된장이 된다.

이런 현상은 미생물이 향산화 물질을 생성하여 부패를 막고 유기물을 저분자하여 흡수되기 쉬운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EM은 발효를 촉진하는 유용 미생물의 복합체이다. EM은 악취제거, 수질정화, 식품의 산화방지, 음식물쓰레기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환경단체에서부터 일반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환경보호차원에서 EM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청소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EM으로 흙공을 만들어 하천에 던져 수질정화운동에 참여하기도하며 기업체들의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으로 지속적인 하천 환경정화 활동과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환경운동은 띠를 두르고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거창한 단체 활동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의 작은 실천이 하나 둘 모일 때, 생활속의 환경운동으로 사람과 훼손된 자연환경을 살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는 지금껏 화학세제와 살균제에 익숙해져 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세제와 살균제는 과연 몇 종류나 산재해 있을 것인가?

이런 화학제품들은 손쉽게 찌든 때를 제거하고 곰팡이를 없애는데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가정에서의 손쉬운 합성세제 사용은 청결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그 안의 화학성분이 인체는 물론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간과 자연을 알게 모르게 병들게 만들었다.

이제 EM의 사용은 방향전환을 의미한다. 부패와 산화에서 발효와 향산화로의 전환점에 이르렀다. EM은 세제처럼 일시적인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EM의 꾸준한 사용으로 환경이 좋아지면 EM으로 세제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은 불편이 따르겠지만, EM으로의 방향전환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꾸는 일의 시작이며 더 나아가 자연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가정에서의 다양한 EM 활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세탁, 개수대와 배수대 청소, 전자레인지, 변기 배수구 소독, 벽장 침구소독, 서랍장, 세탁 등의 악취제거, 화단과 정원, 애완동물 등 집안 곳곳에 사용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나부터 앞장서서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치 우 의 원

부끄러움이 없는 삶

(2013. 3. 10. 창원시보 제65호 게재)



어른이 가야할 길

인생에서 주변을 골고루 만족 시키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상 성인군자가 아니면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우리같이 정치가도 아닌 봉사자의 신분으로서는 더 더욱 그런 것 같다.

세상은 내가 하는 것만큼 사회적 보답이 돌아와야 하는데 정작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사회적 이익은 아무 것도 없는 현실에서 착한 것이 무엇이며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 구분이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익히고 있지만 요즘 세상은 남이야 어떻게 되던 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살아가고 있는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다.

요즘 어른이 어른이기를 포기하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어른들이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린다.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록 세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도 세상을 옳게 이끌어와야 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었으니까 이제라도 아이들에게 부끄럼 없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

알 수 없는 영역

세상에서 의심 받을 짓을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으련만 오늘날의 세태에서는 의심을 받아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는 이 땅에서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도 돈이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의 효용성을 시험이라도 해 보려는 듯 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은 정치인, 기업 총수들은 죄를 짓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높은 사람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기 합리화에 골몰하고 있는 사회풍토가 우리로 하여금 가슴 답답하게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정치인, 기업인 신뢰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나올는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나이가 40대라고 말하는데 50·60·70대 나이든 높은 분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는 과연 불혹이라는 나이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높은 사람,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할 덕목인 오블리제, 노블레스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봐야 할 순간이 아닐까?



박삼동 의원

만남

(2013. 3. 25. 창원시보 제66호 게재)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평생을 두고 은혜를 갚아도 모자라는 은인을 만나고, 지혜롭고 현명하여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도 만나는가 하면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던가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만남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 사랑과 미움,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지 않은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부는 날에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과의 만남, 그냥 곁에 있어만 줘도 위안과 믿음이 되고 ‘함께’라는 느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얼마나 가슴 벅찬 만남들입니까?

우리 역시 통합 창원시 초대 의원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본래 눈은 잘 보라고 만들어졌고, 귀는 잘 들으라고 만들어졌으며, 입은 바른말을 하라고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고 나눠 갖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면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근심을 줄이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숏한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 진정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현안문제와 민원해결, 예산문제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들을 만날 때는 서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지역구라는 걸림돌 때문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들도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료들도 무엇인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합 창원시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여 시민들의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따사로운 이 봄날에 새롭게 해봅니다.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